

논문 8

## 실업계 고등학생의 징계와 관련된 변인 탐색 -사회경제적 지위, 자기통제와 비행을 중심으로-

이 희 정\* · 장 윤 정\*\*

### 요약

본 연구는 실업계 고등학생의 징계와 관련된 변인을 사회경제적 지위(SES), 자기통제와 비행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고용패널자료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한국교육고용패널의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2000명(남자:1105명, 여자:895명)으로 징계에 관련된 자기통제와 사회경제적 지위, 비행 변인을 구조방정식 모형(SEM)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서, 첫째,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는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낮은 비행과 징계의 위험이 높았으며, 자기통제를 잘 하지 못하는 청소년 역시 비행의 위험이 높고, 직접적으로 징계를 더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녀 고등학생의 징계 관련 변인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자청소년의 경우, SES와 자기통제에서 징계와 처벌에 이르는 모든 직간접 경로는 유의미한 반면, 여자청소년의 경우,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비행을 통하여 징계에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쳤으며, 낮은 자기통제력은 직접적으로 징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비행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다.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 징계의 변별 격리 모형지향 정책에서 가정, 교사, 학교, 지역사회내의 전문가들의 협동적인 진단처방지향적 모형으로 변화할 것을 제언하였다.

### I. 서론

최근 정부에서는 심각한 교내외 학생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학교 담당 형사 제도를 도입하여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각급 학교는 학교 폭력의 추방을 위하여 학생징계를 엄격히 시행하는 쪽으로 나아가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즉 학교장뿐 아니라 일선 교사들에게도 학생 징계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예를들면,

\*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아동복지전공 전임강사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생활문화학과 강사

서울시교육청은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육을 위반한 학생에 대해 일선 교사가 방과후 잔류 조치나 교실에서 퇴출시켜 반성교실로 회부하는 조치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비행 학생들에 대한 학내 봉사나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 등 네 단계 조치를 가능하게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출석 정지와 정학 처분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 역시 추진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징계 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도 포함해 교육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한겨레신문, 2007년 7월 10일자).

이러한 방침은 일반 학생의 보호라는 일반 이익의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바람직한 조치 이면서도 관련 학생의 특수이익의 관점에서 보면 비교육적이라는 모순을 안고 있다. 특히 고등학생은 발달단계상 주변인 혹은 중간자로서 자기 통제의 기제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일반 학생의 경우 학생징계 제도를 통해 규범 위반 학생으로부터 보호된다는 점에서 일반이익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지만, 고등학생은 규범 갈등기에 속해 있는 만큼 언제 특수이익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지위로 전환될지 모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상황적 모순은 더욱 복잡해진다.

그런데 현재 학생징계에 관한 유일한 법률 규정인 교육법 제76조는 ‘교육상 필요’가 있을 때에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학생징계는 법적으로 학교장의 ‘교육적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파악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각 학교에서 학생징계권은 학교장의 권한으로 존중하여 왔기 때문에 별로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최근에 들어 국민의 교육권 의식이 높아지면서 학생의 교육받을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학생징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학생징계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는 연구된 결과가 거의 없고, 법리적 해석이나 징계절차의 법적 보장을 위한 규범적 논리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조배동, 1996).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교육고용패널의 2004년 자료를 토대로, 학생 징계의 특성과 이에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여 징계제도와 관련된 이론적 및 행정적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학생 징계와 낙인이론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이 음주, 흡연 등의 비행을 저지르게 되면 징계를 받게 된다. 징계에 있어서의 두가지 논리는 정당화 논리와 시행의 논리를 들 수 있다. 먼저 정당화 논리는 학생의 ‘교육적 이익’과 관련하여 학생징계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 이는 재학

관계를 특별권력관계로 이해하던 전례의 관점이 부정되고, 교육받을 권리가 핵심적인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교육법 제 76조는 징계를 ‘교육상 필요’의 요건과 한정적으로 연결 짓고 있다. 한편, 학생징계는 교과교육과 달리 교육적 이익을 위한 소극적 수단인 만큼 처벌의 범위는 한정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데 그 기준은 ‘학생의 본분 위반’으로 설정될 수 있다. 다음으로 시행의 논리는, 학생징계의 과정에서 학교의 포괄적 재량권은 인정되지만 학생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 재량의 한계기준이 지켜져야 한다. 또한 재량권의 한계 내에서도 재량의 교육적 행사 준거가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그중 특히 낙인의 효과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즉 학생 징계의 일반적 목적은 응보, 억제, 개선에 대응하는 다양한 조치가 발견되는데, 응보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규범 위반에 상응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학생징계에서는 이러한 불이익이 이중성을 갖고 있다. 학생징계를 받게 되면 직접적 불이익 조치로서, 또한 학교의 의식적 불이익 조치로서 수업정지와 함께 사고결석 처리로 이어지며, 기타 행동발달평가, 학생회 간부직, 포상, 장학금, 학교 행사 참가 등의 면에서 각종 불이익이 주어진다. 이중에서 특히 대부분의 학교에서 등교지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석으로 처리하는 것은 의도적 불이익 조치로서 성격이 강하다. 또한 학생징계에서는 이차적 침해 이익으로서 낙인효과를 들 수 있다.

이론적 측면에서 낙인이론은 일탈행위자의 심리적 동기, 그 동기를 유발하는 환경적 요인,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에 초점을 맞추어 온 전통적 관점에 대한 비판과 함께 어떤 사람의 어떤 행동이 일탈로 규정되는 사회적 반응 및 낙인이 정체성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기울인다. 대표적 낙인이론가인 Becker(1963)에 따르면, 사회는 일탈을 규정하는 규칙을 만들고 이것을 특정인에게 적용한다. 그러나 규칙을 적용하는 이유는 특정인이 저지른 행동의 성질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 낙인이론에 따르면 사회에는 다양한 가치가 있고, 이들 간에 문화적 갈등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갈등은 대개의 경우 집단 내에서 권력과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된다.

즉 낙인이론에서는 사회에서 강자들의 편에서 일하는 통제기관이 보다 약한 자들에게 낙인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사회 내의 강자는 어떠한 행위가 일탈 또는 불법적인 것으로 금지되고 평가될 것인가를 결정한다. 똑같이 법을 위반해도 비교적 힘없는 집단에 속한 개인은 힘 있는 집단의 개인보다 공식적으로 낙인찍히고 처벌받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학생에게 있어서도 징계를 받는 낙인을 찍는 것은 청소년이 무슨 행위를 하였는가 보다는 그가 누구인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즉 어떤 행위와 어떤 사람이 비행으로 낙인 되는가 하는 것은 특정 행위와 행위자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러한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정의(social definition)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비행의 원인 이라기보다는 낙인의 원인, 일차적 비행보다 이차적 비행의 원인을 취급하는 낙인이론은 그 이론의 성격 때문에 불가피하게 권력 정치(power politics)의 문제를 제기하게 되어 1960년대 중반부터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낙인이론은 일차적 비행이 발생한 후, 어떤 과정을 거쳐 이차적 비행에 이르게 되는가에 연구의 초점을 두기 때문에 비행과 범죄에 관한 원인론 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보기도 한다(김준호, 노성호, 이성식, 광대경, 이동원, 박철현, 2003). 즉 사회적 낙인을 회피할 수 있는 권력 집단의 비행에 무관심하고, 사회적 낙인을 피할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하류 계층의 비행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권력 정치의 문제를 제기한 이론적 특성과 권력 집단의 비행과 범죄에 침묵하게 되는 한계성 사이에 역설적 모순이 있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낙인이론은 낙인찍는 자들이 무엇을 대표하며, 그들이 지키려는 이익은 무엇이며, 그들의 규정적 행위는 기존 사회구조의 어떤 특징을 강화하는가에 대한 설명은 빈약하다. 또한 교육현장에서 장기간의 관찰 평가에 근거한 기술과 자의적 낙인을 구별할 수 있는 준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일탈자에게 몰입할 것인가 아니면 낙인을 벗어날 것인가를 선택할 주관적 의도의 문제를 분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낙인의 계층차별성에 관한 Tittle과 Curran(1988)에 따르면, 낙인이론가의 주장은 크게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의 경험연구의 1/3은 계층에 따라 사법기관의 대응이 다르다는 결과를 보이지만 2/3는 그렇지 않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국내의 연구결과 중에서 조배동(1996)은 징계 받는 학생이 느낀다는 생각하는 불이익이 무엇인가를 검토한 결과, ‘학급동료나 선생님으로부터 불량학생으로 낙인찍히는 것’이라고 응답한 학교는 38.6%로 제일 많았고, ‘학생 자신의 자아상에 상처를 입는 것’이라고 응답한 학교도 12.9%에 달하였다. 여기에 ‘학교에 부모를 나오시게 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응답한 학교도 12.9%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징계에 따라 학부모를 내교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에 의한 낙인효과가 유발될 수 있다.

낙인이론과 자기통제이론에 대한 징계 경험에 대한 청소년패널자료를 통하여 비교한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징계경험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자기통제의 영향력이 징계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기도 하였으며(민수홍, 2005a), 교도소 대상을 활용한 반복 연구에 있어서도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한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자기통제이론이 징계경험을 보다 잘 설명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민수홍, 2005b).

## 2. 사회경제적 지위, 자기통제와 비행

Gottfredson과 Hirschi(1990)는 범죄의 일반이론에서 낮은 자기통제력이 범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들의 자기통제이론에 따르면 자기통제력이 높은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는데 비하여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이 결정론적인 것은 아닌데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아니고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자기통제력 외에도 연령, 성, 범죄기회 등도 범죄의 원인이 된

다고 주장하고 있다(민수홍, 1994).

낮은 자기통제력이 범죄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많은 연구에서 경험적 연구로 증명되고 있다. Pratt와 Cullen(2000)은 21개의 종단적 및 횡단적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낮은 자기통제력과 범죄 사이의 관계를 직접 검증하였는데 분석결과, 예측된 방향에서 일관성있는 결과가 나타나서 자기통제력은 평균적으로 비행과 범죄가 갖는 변량의 19%를 설명하였다. 국내연구(고정자, 2005; 민수홍, 2004, 1998, 1996; 하영희, 2003; 김두섭, 민수홍, 1996)에서도 자아통제력이 범죄의 원인으로 검증되었는데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비행 및 문제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들은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존 연구의 상당수(김재엽, 이익섭, 박수경, 1998; 민수홍, 1998; 김준호, 노성호, 1989)가 계층과 청소년 비행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거나 있어도 매우 약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기광도(2001)는 사회계층과 범죄간의 관계가 이론적으로는 부(-)의 관계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연구에서 약한 부적 관계 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는 기존연구에서 사회계층과 범죄간에 직접적인 관계를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사회계층이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 원인이라 하더라도 사회계층체계는 직접적으로 범죄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다른 매개요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기광도, 2001). 이경남(2001)의 연구에서는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온정적 수용적 양육행동이 증가하고 거부적 양육행동과 방임적 양육행동이 줄어들며, 이것이 아동의 비행 행동이나 학업 성취 등의 요인이 되는 자아통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광도(2001)의 연구에서도 사회계층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기통제력을 매개로 비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하여 부모의 유대나 지지가 약화되는 것과 같이 가족과정 측면에서의 문제로 인하여 청소년기 이탈행동과 관련된다는 많은 연구들이 존재한다. 정소희(2007)는 사회계층 혹은 빈곤이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경로는 부부갈등에서 찾기도 한다. 심화된 빈곤은 부부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이로 인해 부모자녀간 갈등이 심화되고 부정적 양육행동이 증가하여 비행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다. 빈곤가정 청소년과 비빈곤가정 청소년을 비교한 오경자, 김은이, 도레미, 오유경(2005)의 연구에서는 부모지지의 보호적 기능이 빈곤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와의 애착, 부모의 감독 등의 상호작용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이동원(1997)의 연구에서는 부모애착, 부모의 감독이 비행을 통제하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 3.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위기와 징계, 비행의 관계

우리나라 교육은 입시위주의 파행교육으로 인해 학교, 특히 고등학교에서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재창, 김영만, 신경숙, 손승희, 2000). 단순히 아는 것은 많지만 실제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지적, 사회적 효율성의 퇴보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중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목표는 고도의 산업발전과 국제 경쟁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익혀 필요한 산업기술인력을 공급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데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은 국가의 중요한 기술인력 공급, 대학 비진학자를 위한 직업준비 교육 등 여러 기능들을 수행하기는 하지만, 많은 문제점 또한 지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기능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인력양성의 기능이나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 그리고 자기 일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직업의식을 고취시키는 일 등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상급학교의 진학을 사회적 지위 획득이나 신분상승의 수단으로 삼는 일류의식으로 인해 학생들의 적성이나 흥미를 무시하고 무조건 일류대학 또는 아무 대학이나 붙고 보자는 식의 입시풍토나 기능인을 등한시하는 사회적 풍토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으로 말미암아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각종 육성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우수한 산업인력의 가능성을 지닌 학생보다는 학업성적이 떨어지거나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진학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우리나라 학생들이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가정환경에 있다는 결과들이 존재하고 있다(신재순, 1998; 김홍규, 1997; 이은희, 2003).

실제로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인문계 고등학생들에 비하여 적응문제로 고민과 걱정을 많이 하고, 대체로 부모의 관심 부족과 경제 수준이 낮은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진학할 수 밖에 없는 학교 환경 등이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적응 문제를 가져왔다(김명곤, 1998). 그 결과 흡연이나 성문제(김혜원, 이해경, 2002)와 같은 청소년기 고유의 문제행동이 일반계 고등학생에 비해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경우 훨씬 빈번하고, 이에 따라 학교에서의 징계 및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다. 박현미, 박영신과 김의철(2005)도 실업계 고등학생 부모의 삶을 질을 낮추는 요소로서 경제적 요인을 들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첫째, 실업계 고등학생의 사회경제적 지위, 자기통제력, 비행과 징계는 어떠한가?
- 둘째, 실업계 고등학생의 사회경제적 지위, 자기통제력과 비행 및 징계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 셋째, 실업계 고등학생의 사회경제적 지위, 자기통제력과 비행 및 징계에 있어서 성차가 존재하는가?

### III. 연구결과

####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한국고용교육패널의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2000명(남:1105, 여:895)으로 구성되었다.

#### 2. 연구도구

##### 1) 사회경제적 지위

청소년의 사회경제적지위(SES)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구설문지에서 수입과 자산, 가족구성원의 학력을 살펴보았다. 가구설문지에서 6번 학력과 75번 1년간 월평균 가구소득, 77번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총액을 사용하였다. 학력은 ① 미취학 ② 무학 ③ 초등학교 ④ 중학교 ⑤ 고등학교 ⑥ 2-3년제 대학 ⑦ 4년제 대학 ⑧ 대학원(석사) ⑨ 대학원(박사)으로 측정되었으며, 부동산과 금융자산 총액은 ① 1천만원 미만 ② 1천만-2천5백만원 미만 ③ 2천5백만-5천만 미만 ④ 5천만-7천5백만원 미만 ⑤ 7천5백만-1억원 미만 ⑥ 1억-2억원 미만 ⑦ 2억-3억원 미만 ⑧ 3억-4억 미만 ⑨ 4억-5억 미만 ⑩ 5억-10억 미만 ⑪ 10억-20억 미만 ⑫ 20억-50억 미만 ⑬ 50억원 이상으로 측정되었다.

##### 2) 자기통제

청소년의 자기통제를 알아보기 위해 전반적인 자기통제, 컴퓨터사용, 지각횟수를 살펴보았다. 학생질문지에서 자기통제의 태도적 측면을 측정하는 50-7번 학교생활에 성실하다, 52-4번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을 무리 없이 결정한다, 52-5번 내가 계획한 것을 잘 할 수 있다는 5점 척도로 되어있으며, 행위적 측정문항으로 29-2번 주로 게임과 채팅용으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시간, 70번 지난 1년간 지각한 횟수를 사용하였다.

##### 3) 비행

청소년의 비행을 측정하기 위하여 흡연, 음주, 성관계, 가출 등을 살펴보았다.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0점에서 일주일에 몇 갑을 피우는지 빈도와, 술을 마시지 않는 0점에서 거의 매일 마시는 4점, 성관계 유무는 더미변수로 없으면 0, 있으면 1, 가출경험은 없다 0점에서 몇 회에 이르는 경험빈도로 측정되었으며, 이를 합산하여 비행으로 계산하였다.

4) 징계

청소년의 징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재학 중 징계 받은 경험이 없으면 0점에서 징계의 수준에 따라 훈계 1점, 근신 2점, 학교내 봉사 3점, 사회봉사 4점, 특별교육이수 5점, 퇴학 6점으로 계산하였다.

3. 자료처리

본 연구를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WIN 프로그램과 AMOS 프로그램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배경을 포함한 관련 변인들의 기술통계치를 산출하였고, 징계에 관련된 자기통제와 SES, 비행 변인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탐색하였다. 연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홍세희(2000)가 만족스러운 적합도 지수로 제안하고 있는 TLI, CFI, RMSEA를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측정변인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관련 변인들의 기술통계치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측정변인의 기술통계치

변인	구분	M	SD	범위	
사회 경제적 지위	학력	남(n=1066)	4.40	1.258	2-9
		여(n= 879)	4.36	1.112	2-8
		전체(n=1945)	4.38	1.194	2-9
	자산	남(n=1043)	4.29	2.188	1-12
		여(n= 873)	4.07	2.026	1-11
		전체(n=1916)	4.19	2.118	1-12
	수입	남(n=1056)	224.13	157.788	0-1800
		여(n= 874)	214.04	132.195	0-1000
		전체(n=1930)	219.56	146.80	0-1800
자기 통제	전반적 자기	남(n=1105)	3.36	.598	2-5
		여(n= 895)	3.21	.574	1-5
		전체(n=2000)	3.29	.592	1-5

컴퓨터사용	남(n=1082)	2.85	.812	1-4
	여(n= 867)	2.31	.790	1-4
	전체(n=1949)	2.61	.847	1-4
지각횟수	남(n=1105)	7.45	15.404	0-100
	여(n= 895)	6.38	14.346	0-100
	전체(n=2000)	6.97	14.946	0-100
비행	남(n=1105)	2.86	3.235	0-19
	여(n= 895)	1.63	2.171	0-16
	전체(n=2000)	2.31	2.874	0-19
징계	남(n=1105)	.56	1.469	0-16
	여(n= 895)	.40	1.198	0-12
	전체(n=2000)	.49	1.356	0-16

사회경제적 지위의 경우, 가족 구성원의 학력은 평균 4.38로 ‘중학교 졸업(4점)’으로 나타났으며, 부동산의 시가 총액과 금융자산 총액은 평균 4.19로 ‘5천만원에서 7천5백만원 미만(4점)’이며, 지난 1년간 월 평균 가구 소득은 평균 219.56백원으로 나타났다.

자기통제의 경우, 전반적 자기통제는 평균 3.29로 5점 척도 중 ‘보통이다(3점)’에 가까워 학교생활에 대한 성실성, 결정력, 계획성이 보통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컴퓨터 게임과 채팅을 위하여 사용하는 정도는 평균 2.61로 ‘일주일에 3회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년 동안 지각을 평균 6.97로 약 7회 정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의 경우, 평균 2.31로 범위 0-19를 고려할 때, 흡연, 음주, 성관계 경험, 가출 등의 비행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의 경우, 평균 .49로 징계를 받지 않거나 받아도 훈계 수준의 징계를 받는 것으로 징계의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연구모형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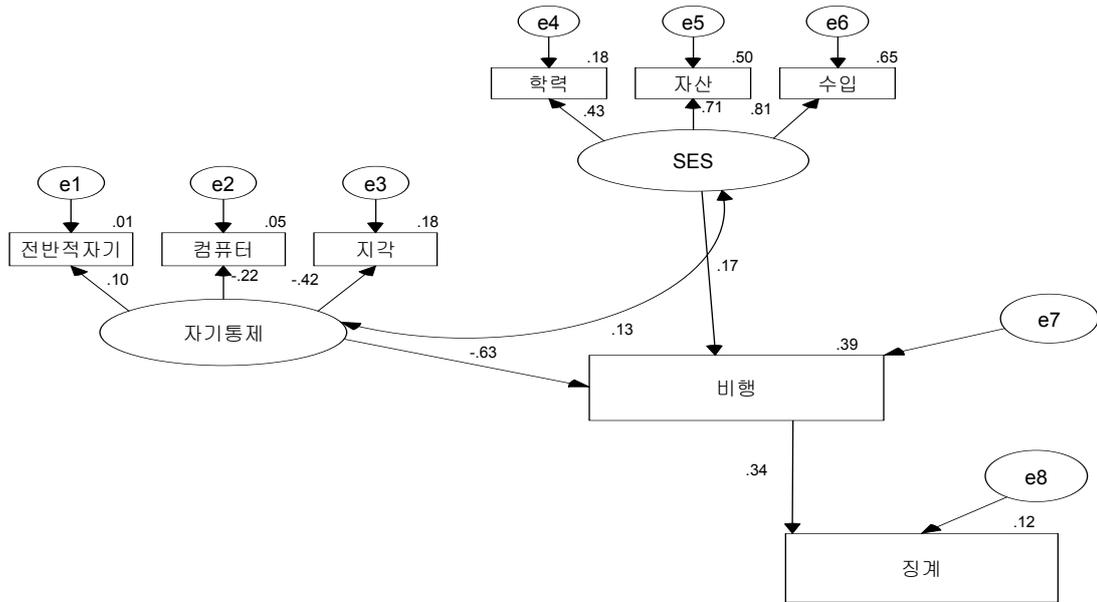
청소년의 징계와 관련된 연구모형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기통제가 징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비행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을 제시하였다.

먼저 연구모형을 평가하기 위하여 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를 산출한 결과<표 2>, 연구모형 I ([그림 1] 참조), 모형II([그림 2] 참조) 모두 TLI, CFI는 1에 가깝고, RMSEA는 .05이하로 연구모형은 매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지수	$\chi^2$	df	TLI	CFI	RMSEA
연구모형 I	82.464	18	.995	.997	.042
연구모형 II	35.101	16	.998	.999	.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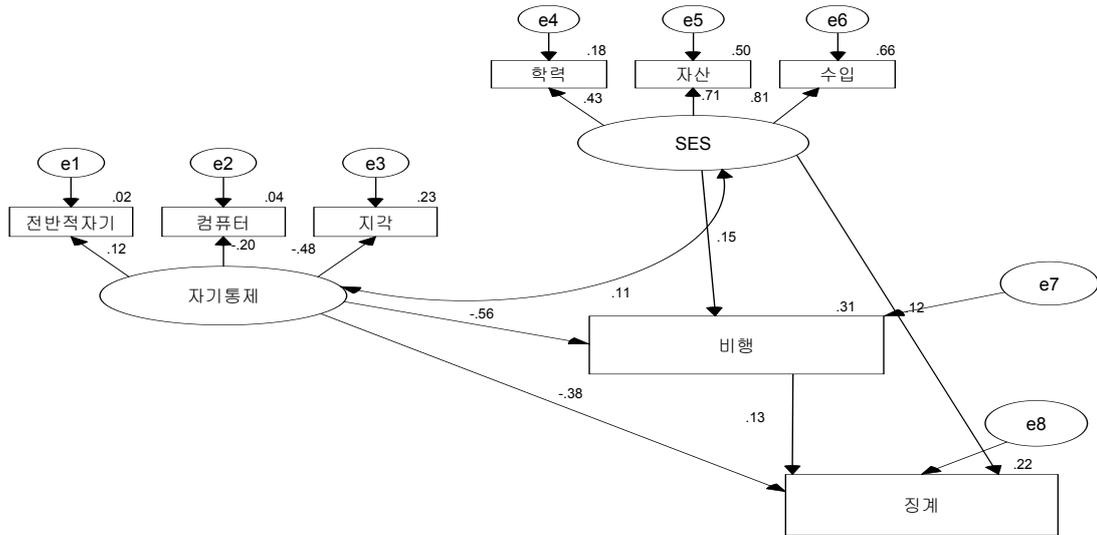
두 모형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chi^2$ 의 차이와 자유도의 차이를 이용하여  $\chi^2$ 검증을 하였다.  $\chi^2$ 차이검사 결과  $\chi^2$ diff=47.363, dfdiff=2로 이 경우,  $\chi^2$ 값이 .01수준에서 유의미하므로 대안 모형이 자료를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직접 경로가 있는 모형 II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1] 청소년의 징계와 관련된 연구모형 I

[그림 2] 연구모형에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사회경제적지위에서 비행에 이르는 경로는  $\beta=.15(p<.001)$ , 자기통제에서 비행에 이르는 경로는  $\beta=-.56(p<.01)$ ,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징계로 이르는 직접경로는  $\beta=.12(p<.01)$ , 자기통제에서 징계로 이르는 직접경로는  $\beta=-.38(p<.01)$ 로 유의미하였고, 비행에서 징계에 이르는 경로는  $\beta=.13$ 으로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는 청소년은 잦은 비행과 징계의 위험이 높았으며, 자기통제를 잘 하지 못하는 청소년 역시 비행의 위험이 높고, 직접적으로 징계를 더 많이 당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최종 모형은 <부록1>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의 중다상관 자승치를 살펴보면, 자기통제와 사회경제적 지위는 비행에 31%, 징계에 22%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청소년의 징계와 관련된 연구모형II

### 3. 청소년의 성에 따른 모형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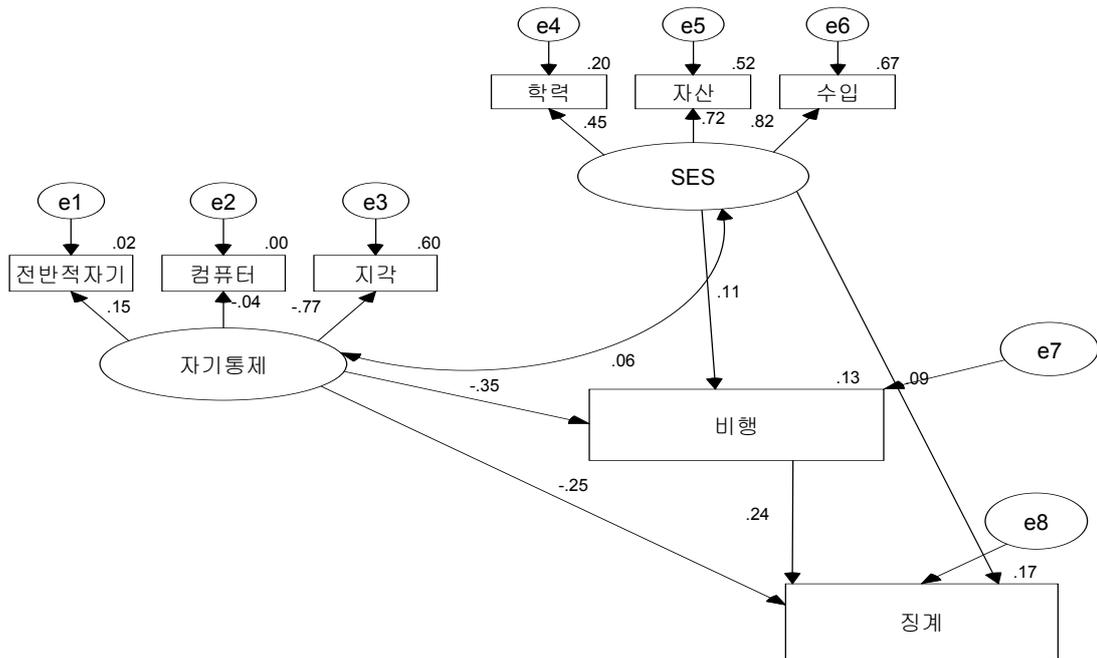
#### 1) 남자 청소년의 모형분석

선정된 연구모형II로 남자 청소년의 징계와 관련된 사회경제적 지위, 자기통제, 비행 변인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모형을 평가하기 위하여 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를 산출한 결과 <표 3>, TLI, CFI는 1이며, RMSEA는 .05이하로 연구모형은 매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지수	$\chi^2$	df	TLI	CFI	RMSEA
연구모형	16.6	16	1.0	1.0	.006



[그림 3] 남자청소년의 징계와 관련된 연구모형

[그림 3]에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의 사회경제적지위에서 비행에 이르는 경로는  $\beta=.11(p<.01)$ , 자기통제에서 비행에 이르는 경로는  $\beta=-.35(p<.001)$ , 사회경제적지위에서 징계로 이르는 직접경로는  $\beta=.09(p<.05)$ , 자기통제에서 징계로 이르는 직접경로는  $\beta=-.25(p<.01)$ , 비행에서 징계에 이르는 경로는  $\beta=.24(p<.001)$ 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청소년의 경우,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낮은 자기통제력은 직접적으로 징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비행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남자 청소년의 경우 컴퓨터 게임,채팅 시간은 자기통제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중다상관 자승치를 살펴보면, 자기통제와 사회경제적 지위는 비행에 13%, 징계에 17%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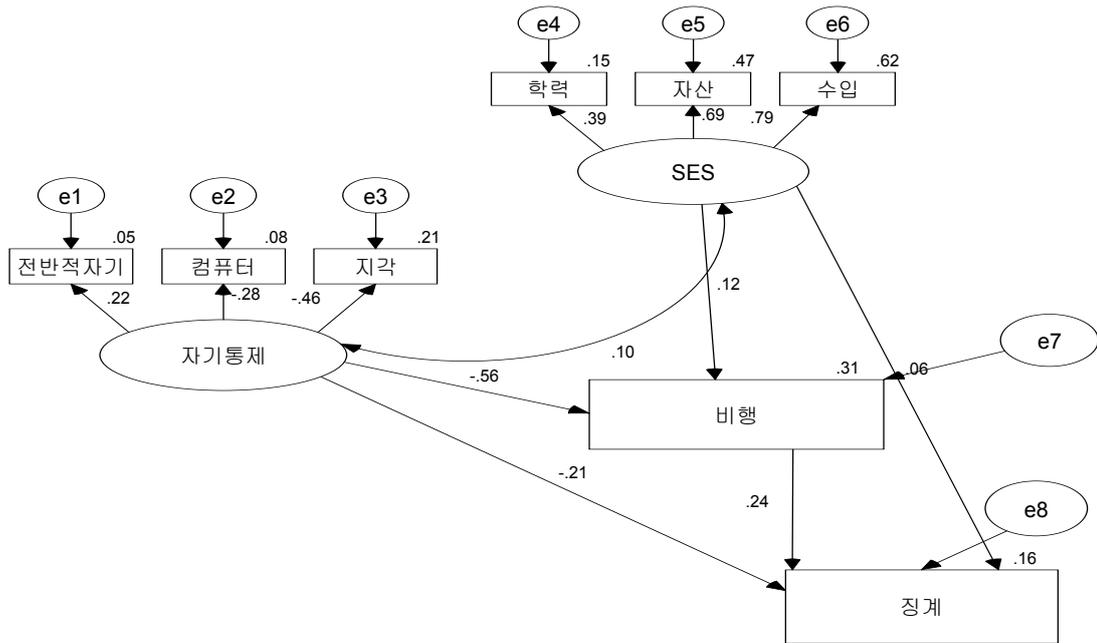
## 2) 여자 청소년의 모형분석

선정된 연구모형Ⅱ로 여자 청소년의 징계와 관련된 사회경제적 지위, 자기통제, 비행 변인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모형을 평가하기 위하여 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를 산출한 결과 <표 4>, TLI, CFI는 1이며, RMSEA는 .05이하로 연구모형은 매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지수	$\chi^2$	df	TLI	CFI	RMSEA
연구모형	16.867	16	1.0	1.0	.008



[그림 4] 여자청소년의 징계와 관련된 연구모형

여자 청소년의 사회경제적지위에서 비행에 이르는 경로는  $\beta=.12(p<.05)$ , 자기통제에서 비행에 이르는 경로는  $\beta=-.56(p<.001)$ , 자기통제에서 징계로 이르는 직접경로는  $\beta=-.22(p<.05)$ , 비행에서 징계에 이르는 경로는  $\beta=.24(p<.001)$ 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경제적지위에서 징계로 이르는 직접경로는  $\beta=.06$ 로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청소년의 경우,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비행을 통하여 징계에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자기통제력은 직접적으로 징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비행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연구모형의 중다상관 상승치를 살펴보면, 자기통제와 사회경제적 지위는 비행에 31%, 징계에 16%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논의

### 1. 이론적 시사점

본 연구결과 중 낙인이론에서 설명하는 징계와 관련된 변인 중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기통제와 비행 중,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비행을 더 많이 하고, 징계받을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한 해석은 본 연구의 대상이 평균 수입이 220만원 가량의 비교적 저소득의 실업계 학생들의 집단에서의 결과인 것을 주의깊게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자기통제의 성차나 측정에 있어서도 자기통제력의 측정 자체가 태도, 인지, 행위적 측면에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기통제의 태도적 측면으로서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을 무리없이 결정한다”, “학교생활에 성실하다”, “내가 계획한 것을 잘 할 수 있다”로 측정하였으며, 게임과 채팅시간과 지각횟수를 통하여 행동적 측면을 측정하였으므로, Hirschi와 Gottfredson(1993)이 제안하였듯이, 좀 더 행위적 측정만으로 도구가 구성될 경우, 타당도가 높다는 의견과 비교해 볼때, 본 연구가 패널자료를 2차적으로 활용하는 연구이므로, 연구주제에 맞는 문항을 골라 자기통제 변인을 구성하였으므로, 자기통제력의 측정에 있어서 행위적 측면을 다루는 문항 선정이 제한적이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패널 1차 자료에서 흡연, 음주, 성관계와 가출만으로 비행 변인을 측정하였으므로, 이같은 지위비행이 아닌 폭력이나 절도와 같은 비행을 포함시켰을 경우, 경로모형은 달라졌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본 연구결과는 후속연구와 연결지어 추후에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의 자기통제 하위 변인은 의사결정에서의 주체성, 학교생활 성실성, 계획실천력 측면의 태도를 보았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이 징계로 나타난다는 (이규미, 2005)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자기 및 학교관련 변인들이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부모자녀관계나 학교 교사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와 같은 과정변인을 포함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통제력을 무엇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남녀 청소년 모두에서 자기통제력은 비행과 징계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Hirschi와 Gottfredson(1993)이 설명하는 자기통제이론은 지지받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남녀 실업계 고등학생 모두 자기통제력이 비행과 징계와 관련되는 것으로 모형 검증결과 밝혀졌으므로, 중학생 패널자료를 활용한 민수홍(2005a)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성차, 즉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자기통제능력이 더 우수하다는 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해석을 몇가지 고려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대상이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생이므로, 현재까지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실업계 교육을 이수한다는 것 자체가 본 연구대상이 비록 징계자가 포함되긴 했으나, 학교

에서 수거하여 완성된 질문지에 근거하여 결과가 나왔으므로, 퇴학과 같은 고강도의 징계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본 연구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비행 변인은 폭행, 절도와 같은 폭력과 절도와 같은 범죄 수준의 비행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위비행의 경우, 비행 수준으로 볼 때 강도가 약한 종류이므로, 여학생과 남학생의 비행에 있어서 오히려 지위비행은 여학생의 비행 수준이 오히려 남학생보다 더 높다는 선행연구(정익중, 2005)와 견주어 볼 때, 본 연구대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이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즉 자기통제력은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 비행과 관련된 변인으로 나온 부분에 대하여 본 연구의 대상이 실업계 저소득층, 저학력군에 해당하는 표본이므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비행을 더 많이 하고, 징계를 더 많이 받는다는 결과는 주의하여 해석해야 하며, 일반계 및 다양한 연령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후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긴 하나, 낙인이론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못하고 있다는 선행연구(Tittle & Curran, 1988)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행정적 시사점

학생징계는 교육기관으로서 학교에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형벌의 개선과 학생징계의 개선은 그 방향과 초점을 달리하며, 형벌의 주된 과제와 학생징계의 주된 과제 또한 같을 수 없다. 학생징계의 모형은 기본적으로 일부 소수의 학생만이 규범을 위반하는 습성을 갖고 있다고 보느냐 아니면 모든 학생이 규범 위반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전자를 취할 경우 소수 일탈 학생의 변별과 그 학생이 한 행위의 평가를 중심으로 하여 징계의 초점은 문제 학생의 확인에 맞추어진다. 이에 비해 후자의 입장을 취할 경우 모든 학생이 규범 위반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만큼 위반자의 개선을 지향하며, 징계의 초점은 문제 학생의 확인이 아니라 문제 행위의 확인에 모아진다. 이같은 관점에서 학생징계의 모형은 크게 두가지 관점에서 운영되는데, 첫째, 변별 격리 지향 모형과 둘째, 진단처방 지향 모형을 들 수 있다. 첫째, 변별 격리 지향 모형에서는 선도의 수단으로 규범을 위반한 ‘소수’ 학생에 대하여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자기 개선을 촉구하는 반면, 진단처방 지향 모형에 입각할때는 어느 학생이나 그러한 규범에 빠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외부 지원과 원조를 제공하는데 노력을 기울인다. 따라서 변별 격리 지향 모형에서는 선도과정에서 격리 지도를 취하는 반면, 진단 처방 지향 모형에서는 협동적 개선을 중시한다. 나아가 재범에 대해서도 변별 격리 지향 모형에서 보면, 재범의 방지를 맡은 학교의 신뢰를 위반했다는 징표로서 의미를 부여하는 반면, 진단 처방 지향 모형에서는 해당 행위가 습관성 행위인지를 검토하고, 개선의 저해요인을 탐색하는 기회로 삼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 때문에 전자의 경우 징계의 개선과제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도구의 개발을 들 수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규범 위반의 원인을 탐색하고 선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중시한다.

현재 고등학교에서의 학생징계의 실재를 보면, 유기징학의 경우 77.3%, 무기징학의 경우 72.6%의 학교에서 등교지도를 실시하되, 수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별도의 장소에서 격리지도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또한 유기징학의 경우 9.2%, 무기징학의 경우 13.5%의 학교에서는 등교정지를 시키고 있다. 따라서 격리지도는 징계받은 학생에 대한 낙인효과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현재의 징계제도는 변별 격리의 의미를 강하게 띄고 있다. 그러나 진단처방 모형에 입각해 보면 모든 학생이 규범 위반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 만큼 일반 학생과 규범 위반 학생의 본질적 구분은 무의미하며, 격리지도보다는 협동적 지도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학교에서는 반성문 작성 외의 특별지도 프로그램이 미비한 상태이며, 학교의 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지도보다는 학생 스스로의 자기 개선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SES의 영향력이 모두 유의미하므로, 결국 낙인이론이 사회복지 정책의 측면에서 주장하는 전환정책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규정하고 처벌하는데 있어서 학교, 지역사회 및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은 보다 신중하고 관대하게 대처해야 하며, 일탈자의 부정적 낙인을 줄이면서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정자(2005). 부모의 감독정도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2), 1-17.
- 기광도(2001). 사회계층과 범죄행위간의 관계-자녀양육 및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두섭, 민수홍(1996). 개인의 자기통제력이 범죄억제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명곤 (1998). 인문계 고등학생의 계열 결정 요인과 진로지도의 실태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재엽, 이익섭, 박수경(1998).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가정환경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정책*, 6, 54-72.
- 김준호, 노성호(1989). 사회계층과 청소년비행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 *형사정책*, 4.
- 김혜원, 이해경 (2002). 고등학생들의 성행동 경험 분석: 성별, 학교별, 거주지별 비교. *청소년학연구*, 9(1), 247-272.
- 김홍규(1997).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선택과 직업의식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희수, 양혜원 (2007). 저소득 가정아동 및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대한 환경적 요인의 영향구조 비교. *청소년학연구*, 14(1), 155-188.
- 이경님(2001). 학령기 아동의 자기통제에 대한 내외통제소재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인과모형. *대한가정학회지*, 39(12), 37-50.
- 이경님(2002). 청소년의 애착, 자아존중감 및 충동통제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8), 191-206.
- 민수홍(1994). Causes and consequences of low self-control: Empirical tests of the general theory of crime. *Doctoral Dissertation at Arizona University*.
- 민수홍(1996). 비행의 조기에측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민수홍(1998). 가정폭력이 자녀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민수홍(2004). 청소년의 자기통제력과 비행 및 피해경험. *한국청소년개발원 홈페이지*.
- 민수홍(2005a). 낮은 자기통제력의 결과로서의 청소년 비행과 학교에서의 징계경험. *청소년학연구*, 12(2), 1-25.
- 민수홍(2005b). 수형자의 자기통제력과 차별교제가 교도소 내 규율위반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16(4), 301-329.
- 박현미, 박영신, 김의철 (2005). 삶의 질 지각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실업계 고등학생과 부모를 중심으로. *아동교육*, 14(2), 87-100.
- 신재순(1998). 상업계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경자, 김은이, 도레미, 어유경(2005). 빈곤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위험요인과 보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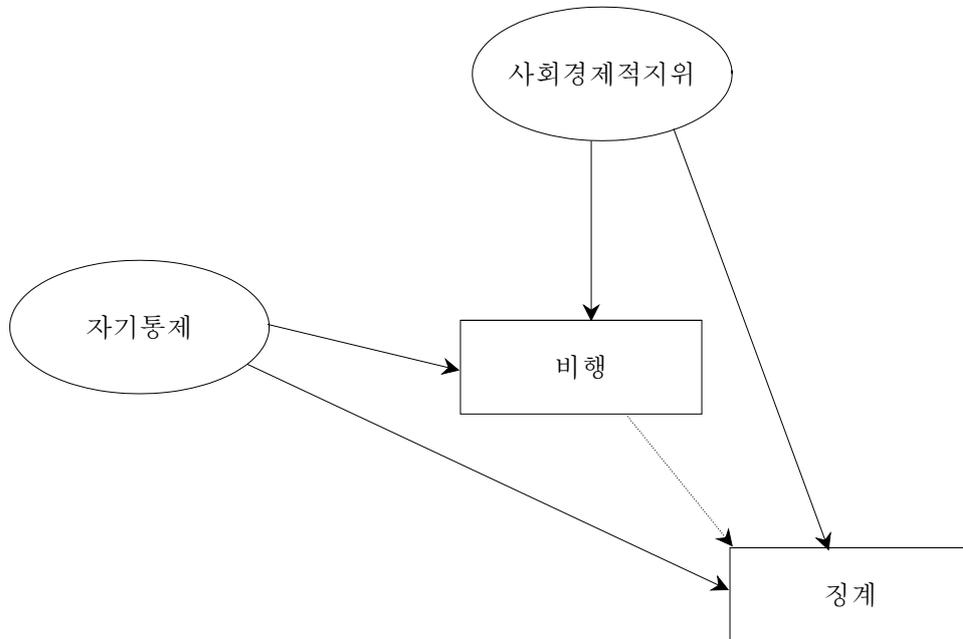
- 인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1), 53-71.
- 이경남 (2001). 초기 청소년의 어머니 애착과 충동 통제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 논문집, 9(1), 91-103.
- 이동원(1997). 청소년 비행에 있어서 허쉬의 사회통제이론의 확장-주요 통제요인들간의 상호작용효과의 도입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6, 73-102.
- 이은희 (2003). 실업계 고등학교 진로지도 교육의 분석.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이재창, 김영만, 신경숙, 손승희 (2000).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학교 적응과 생활지도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교육연구, 15, 105-190.
- 정소희(2007). 사회경제적 지위, 부부갈등, 부모양육행동, 자아통제력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분석. 사회복지연구, 32(겨울호), 5-34.
- 정익중 (2005). 청소년비행의 성별 차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사이트.
- 조배동(1996). 학생징계의 특성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조석훈 (1997). 학생징계의 의미-교사, 학생, 학부모간 인식의 차이 분석. 교육법학연구, 9, 133-148.
- 표시열(1989). 학교행정과 적법절차 원리: 학생처벌시 절차적 적법절차의 보장을 중심으로. 교육법학연구, 2, 161-185.
- 한겨레신문 (2007. 7. 10). '교사에 학생 징계권 부여' 추진.
- 홍세희(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19, 161-177.
- Becker, H. (1963). *Outsiders: Studies in the Sociology of Deviance*. New York: Free Press.
- Gottfredson, M.,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Palo Alto,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Hirschi, T., & Gottfredson, M. (1993). Commentary: Testing the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 47-54.
- Pratt, T. C., & Francis, T. C. (2000). The empirical statu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A meta-analysis. *Criminology*, 38, 931-964.

## ABSTR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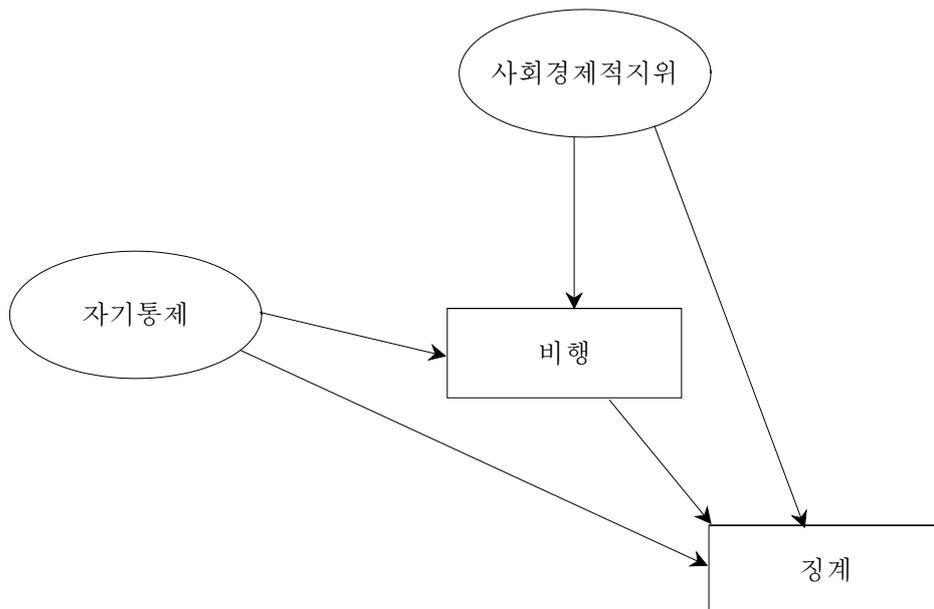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of school punishment, socio-economics status, self-control and juvenile delinquency. The subjects were 2000 adolescents in 3rd grade from vocational high school(male:1105, female:895). This data was from KEEP and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by using SPSS and AMOS program including SES(income, property, education), self-control (general, computer, lateness), delinquent and punishment variable.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final model significant pathed from SES and self-control to delinquent, and from delinquent to punishment. There was gender difference in the path from SES to delinquent. For females, there was more significant the path from self-control to delinquent. Some suggestions were added according to Theoretical and political perspectives.

〈부록 1〉 청소년의 징계와 관련된 최종모형

1. 전체



2. 남자 청소년



### 3. 여자 청소년

